

## Advent 1 reflection

### Nov 27<sup>th</sup> Matthew 24:36-44

오늘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 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서 대림절에 관련되는 말씀을 기대하시지는 않을 것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인 크리스마스와는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종말을 경고함과 함께 아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풍기는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에는 아직 우리에게 허용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한쪽에 제쳐놓고 싶은 것을 직면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모든 자연과, 인간이 만든 세상의 재앙들을 보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때가 언제인지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는 것 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보낼 것 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아마 그들은 크리스마스 쇼핑을 할 것 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또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고, 둘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아주 비참한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것은 꽤 무시무시하고 전적으로 부당하고 무작위로 보입니다. 그것은

“휴거”라고도 불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또한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은 항상 같을 것입니다.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묘사는 확실히 천년 동안 들려왔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둑을 지키는 알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36-44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여기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첫째 오셨음을 축하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예수님의 초림)와 아직(예수님의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는 2000 년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2016 년,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 마태의 예수님의 경고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위한 우리의 준비에서부터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하게도 그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 선물을 준비하는 것, 카드를 보내는 것, 편지를 쓰는 것, 사람들로 가득한 쇼핑 센터에 가는 것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것 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 일까요? 저는 아이들이 숨바꼭질 게임을 할 때 찾는 아이가 “준비되었어”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있던 되어 있지 않던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 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중요 메시지 입니다. 우리는 곧 그것에 관해서 들을 것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크리스마스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 장,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고 하라 하셨으니 번역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잃어 버릴 때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편안한 거실에서 한 사람은 올림을 받고 다른 사람은 시리아, 이락, 예멘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 남겨지는 상징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셀 수 없이 아주 많은 이유들로 투쟁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할 실 수 있나요?

대림절기간 동안 저는 “연약함과 희망”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 두 단어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의 깊이를 붙잡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폭탄, 미사일, 총으로 테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멀리 느껴집니다. 증오라는 말과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터 아주 멀리 느껴 질것입니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학대 당할 때; 아이들이 버려질 때, 술과 마약에 의해서 무력감과 수치심이 불행하게도 들리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외로울 때, 오해 받을 때, 또는 무가치할 때 하나님은 멀리 느껴집니다. 인간의 상황에 관해서 아주 많은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모든 재난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해 안에서 결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완전한 연약함을 선택하심으로 그리고 출산 이후의 고통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고통의 삶을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기는 아주 쉽다고 암시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이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두려움, 재난과 화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희망에 초점을 둡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가장 희망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어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 또는 호주 크리켓 팀이 이기는 것을 이야기 하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 – 종교적 극단주의자 그리고 테러, 암을 치료하는 것, 또는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희망을 보는 것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세상적인 축하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인 성 육신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함으로 완전히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희망을 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원사라면, 이 심음의 상징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것은 삶의 기적

중에 하나이며 우리는 아주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뿌리들을 만들고 햇빛을 향해 싹이 납니다. 그것은 계속 자라고, 그것이 어떤 종류와 연결된 것 안에서 생산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것을 너무 당연히 받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주위에 너무 무겁고 어두운 것으로 둘러 쌓여 있어도 우리가 가진 작은 희망을 심고 그 희망은 자랄 것이라는 것을 상기 시켜 줍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믿음 공동체를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알고, 우리가 함께 희망을 심고 가꾼다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곳,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기억 할 때 희망 안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창조물과도 떨어지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언제 어디에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세상에서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우리는 희망을 가꿀 수 있습니다. 희망은 강력하고 전염성이 있는 것 입니다. 희망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시기를 상기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어떤 예에 의해서 놀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아기의 탄생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었을 까요? 우리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 안에서 어떤 희망을 제공하는 것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까요?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희망적입니다. 나의 딸 로나가 6살이었을 때 우리는 아이오나 수도원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곳은 한 겨울을 보내기에는 아주 어둡고 추운 장소 입니다. 어느 날 밤, 수도원에서 예배가 끝난 후, 저는 로나를 어두운 수도원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초의 끝부분을 모았고 그리고 캄캄한 장소, 기둥들 뒤,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로나는 나에게 그곳에 불을 켜는 것을 도와 달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은 그 곳에도 불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의 빛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